

국내 첫 발견 초강력 A... “확산 막아라” 총력

〈조류인플루엔자 H5N6형〉

전남 시 방역현장 가보니

“서해안을 타고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제 바로 옆 무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21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 대동저수지에서 만난 함평군청 공무원 김경렬(54)씨는 “무안까지 온 AI가 ‘H5N6형’이라는데 이놈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걸렸다하면 증세도 뭐고 없이 딱딱 쓰러져 죽대발이 된다”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대동저수지 옆 도로에는 방역차량이 분주히 오가며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었다. AI바이러스를 보유한 철새의 분변 등을 통해 인근 닭·오리 농가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해남 산이면 산란계 농장의 닭 4만 마리 중 20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면서 시작된 AI는 이른날 총복 육성을 거쳐 청주, 무안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지역 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도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AI 발생 농가 3km 이내 농가가 키우던 닭·오리 7만400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22개 시·군 전체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00여 곳의 농가에서 닭·오리 700여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닭·오리 밀집지역인 나주시 AI 청정지역을 유지하려고 총력 방어 중이다.

해남에 이어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무안과 바로 이웃한 함평군도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대동저수지 주변 도로 10km 구간, 사료 생산 공장, 지역 107개 사육농가 인근 도로

무안 확진판정...“걸리면 끝” 나주·함평 등 방역 대폭 강화

농장 출입문 닫고 농장주 모임 자제...중국선 6명 사망도

10개 구간에 방역 차량 5대를 투입해 수시로 소독을 하고, 사육농가에 공문과 약품을 보내 수시로 사육장 주변을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사료 공급용 차량 외에는 농장 출입도, 농장주 모임도 삼가도록 요청한 상태다. AI의 경우 방역 강화 외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차량이나 사람의 왕래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비상이 걸리기는 사육농가도 마찬가지다. 대동저수지에서 자동차로 5분가량 밀

어진 한 농장은 출입문이 굳게 닫혀 적막감이 감돌았다. 방역 차량을 끌고 군청에서 나왔는데도 주인 정상훈(47)씨는 걸어 잠근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정씨는 “닭 9만 마리를 키우는데 한 번 AI에 걸리면 농장이 온통 죽대발 된다. 마음 같아선 사람이고 차고 아무것도 들고 싶지 않은데 굶겨 죽일 수 없는 노릇이라 사료차만 소독 후 들어오게 한다”면서

“정부에선 농가 잘못이 없으면 보상은 해 주는데, 죽은 닭을 꺼내서 파묻어야 하고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농장에 닭을 들여올 수도 없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올 가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견된 ‘H5N6형’ AI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고, 오리보다는 닭에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라오스 등에서 검출됐고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당국은 인체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함평=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21일 함평군청 소속 방역 차량이 대동면 대동저수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남, 무안 등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경로가 철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어버이날 아버지 살해 남매 중형 선고

이들 징역 20년·딸 18년

법원 “인간적 예의 저버렸다”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누나 B(47)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리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 남매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한 점,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한 점, 장기간 교류가 없었는데도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넘게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남매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공모했다고 봤다. 또 시신의 상태, 범행 후 시신에 락스를 뿌린 점 등을 들어 아버지 살해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매

가 아버지의 장기간 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이들 남매는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아파트 계단에 놓인 대형 고무유기에 시신을 넣고 락스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부패로 인한 악취를 감추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남매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준비와 공모, 은폐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남동생 A씨가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던 정황을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누나인 B씨는 남동생의 범행 도중에는 숨어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며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천현금 수수’ 박준영 의원 징역 5년 구형

추징금 3억1700만원도

다음달 29일 선고 공판

검찰이 공천현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무안·영암·신안)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비용을 조달하고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현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200만원 상당

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비용을 축소, 신고한 후 홍보업체에 따라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박 의원 측은 4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최후변론을 하는 등 50분가량을 할애해 박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 사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당당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돼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연휴뉴스

치료 불만 20대 병원 옥상서 자살소동... 119 출동 구조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대학병원 주차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119구 조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

○...21일 광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A(29)씨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광주시 동구 한 대학병원 주차장 8층 옥상에서 약 1시간 동안 자해를 하는 등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무사히 구조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

○...수년 전부터 특정 부위의 만성 통증에 시달려온 A씨는 이날 병원이 항정신성 약품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소동을 벌였는데, 병원 측은 “A씨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처방받아 과다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백남기 농민 광주투쟁본부 공식 해체

모금액·대형작품 유족에 전달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가 21일 공식 해소를 선언했다.

광주투쟁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함께 외쳐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패륜적인 부검시도에도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백남기 농민이 가시는 마지막 길, 금남로 노제와 망월묘역 하관식까지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다”며 “장례가 끝났지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더 큰 싸움에 나서기 위해

발견적 해소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9월2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광주투쟁본부를 결성했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백남기 농민 광주시민분향소’를 운영했으며 지난 6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투쟁본부는 광주시민분향소를 운영하면서 모은 모금액과 분향소에 설치돼 있던 허달용 화백의 대형 작품(가로 2m x 세로 1.1m)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허 화백은 들꽃처럼 살아온 백남기 농민의 삶을 작품에 담았고, 이 작품은 장례 기간 영정 사진 뒤면에 조화 대신 놓였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미쓰비시 상대 세번째 손해소송 오늘 재판

1년6개월만에 광주지법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정식 재판이 1년6개월 만에 광주에서 시작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1일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2명이 지난해 5월22일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2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및 증인 심문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김영옥(84)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씨의 유족 이경자(73)씨다. 김 할머니는 여수 미령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께 미쓰비시로 동원됐고, 나중가 고향인 최씨는 1944년 12월7일 일본 나고야에서 일어난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모두 11명(피해자 8명, 유족 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차 소송은 1, 2심 승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차 소송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소장 반대로 3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민모임은 23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급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

★ 감정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① 토 151평, 건 43평

② 영광 터미널 5분(농가주택 최적!!)

▶ 매가 8천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45평) 우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매가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온천역 1분(부동산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세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걸까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와 상무나이트점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6백만)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0평) 롯데마트와 상무나이트점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사무실/주거용 오피 임대

동구 수기동 사무실 임대(6층)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6층

45평 (최고급 인테리어) 시설완비 / 시설비 약 4천만 등

※ 시설비 일체 무료

주차원비 / 즉시 입주 가능

▶ 보 2천 월 60만

북구 흥중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

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 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6천 월 5만 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법률 경매 (주) 대진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동구 금남로 (3층 상가 건물) 토 17평 건 250평 금남로 47, 57억 사이 불거리 1층 (은행 2층~3층 (사무실) ▶감정가 21억 → 최저가 9억5천

□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 221평, 건 266평 임동사거리 코너 위치 주유소 2층 주택 있음 ▶감정가 14억 → 최저가 9억8천

□ 서구 금호동 (1층 식당) 토 68평 건 137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 사거리 코너 식당 적격 추천 / 커피숍, 옷가게 추천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

□ 서구 광천동 (5층 상가건물) 토 222평 건 574평 광천터미널 건너편 / 상권회교 광천사거리 / 코너지리 ▶감정가 41억 → 최저가 41억

□ 서구 쌍촌동 (토지) 농지 457평 윤천역 3분 / 치평중 인근 도시지역 / 제 2층 일반 주거용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11억7천

010-7384-7800

010-6670-9800